

성령 | 이남규 루카, 지름 200cm, 달드베르 기법, 1979년, 부천 가르멜수도원

입당송 |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ㄱ과 24ㄱ. 29ㄴ-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리라. ◎

제2독서 | 1코린 12,3ㄷ-7,12-13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로.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요한 20,19-23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이승주 대건안드레아 신부 | 청소년국 국장

누가 젊은이입니까?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축제 'World Youth Day'는 처음 시작할 때 '세계 청소년 대회'로 번역되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대부분 '청년'들만 참석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번역을 '세계청년 대회'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과 관련해 또 다른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정작 다른 나라에서 참가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다수인데 우리는 점점 그야말로 '청년'들만 참가하는 것으로 굳어져, 막상 현장에서 같이 어울리기가 멋쩍은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긴 했지만 '청소년 참가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평가조차 그 구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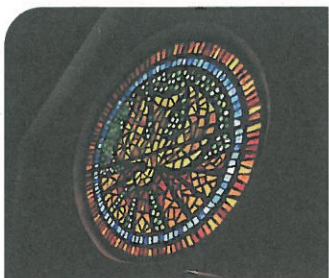
서구에서는 'juventude, jeunesse, youth' 라는 말 속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사춘기 이후의 '젊은이'들을 담아내는 데 비해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이라는 경계에 간혀 그들을 한번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분의 문제는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할 때만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을 동반하는 모든 현장에서 주요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구도 많고 신자도 많을 때에는 세세하게 구분하여 그룹을 짓는 일이 아주 유용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렇게 저렇게 경계를 허물고 통합을 하다 보니 '유아-어린이-청소년-청

년'이라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경계가 생각보다 선명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적인 발달 개념을 토대로 한 학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사목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어린이이고 어디서부터 젊은이인지, 어떻게 그룹 짓는 게 좋은지 하는 물음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유사한 발달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회나 인간이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잠시 입다 벗어 놓았어야 하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서 우리를 그 옷에 끼워 맞추고 '원래 그런 거야.'라며 살아온 결과는 아닐까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러한 생각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선물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경계와 구분을 허무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나라도, 문화도, 인종도 다양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수렴된다는 신비를 성령 강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 우리가 정해줘야지' '왜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그건 청년들 시키면 되지.' '중2병이네.' '넌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것도 몰라?'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게!'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눈을 감고 나는 어떤 경계에 간혀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어둠 속의 성당 내부는 태양이 떠오르면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빛과 색채로 물들여집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이 참된 깨달음과 순수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첫 호흡은 예수님의 성령의 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빛이 가득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이정민 세실리아 | MBC아나운서

경청하는 기도

저는 22년 차 MBC 아나운서입니다. 요즘은 매일 낮 두 시, <뉴스외전>이라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두 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각계 전문가와 정치인 등 여러 인물들이 출연해 저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채널에서도 시사프로를 방송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출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선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선한 목소리를 끌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역량입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인터뷰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요즘 저의 최대 화두입니다.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 방송 초반에는 질문을 만드는 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출연자가 다른 곳에선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물어야 할까?’ ‘사안의 핵심을 짚어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물어야 할까?’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불편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않았습니니다. 마치 큰 그림을 위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인터뷰의 의도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 당연히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대화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자연스럽게, 주제 안으로 깊게 깊게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고민 끝에 머리를 조금 비워보기로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상대의 대답을 듣는 데만 집중해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 도중에 상대 말을 끊지 않고 그저 공감하려 애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라도 일단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질문 들조차도 서로 다른 구도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아, 대화의 핵심은 듣기구나!’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습

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인터뷰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면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더 열심히 들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기도란 주님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문답이 오고 가는 대화는 아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도 내 목소리를 조금 줄이고 주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을까요?

제 지난 시간, 시련과 고통의 순간마다 좌절하고 원망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도의 대부분은 왜 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시지 않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유 없는 시련은 없었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큰 뜻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시련의 순간마다 저의 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했다면 그 고통의 순간도 축복임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마다 주님은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성모 성월은 기쁨과 위로의 달이며,
이 신심을 통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고
그리스도로 백성은 영적 계를 풍부하게 합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 <Mense maio> 중에서-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성모 성월'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2천년 후에 태어난 “우리(나)를 위해 돌아가신”?!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예수님은 2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30여 년을 살다 십자가형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를 위하여” 내어주는 몸, 흘리는 피라고 당신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이 희랍어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3년 서울에 사는 나, 우리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출발해 보지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이시라는 것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신앙고백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심은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이 깨끔 하는 모든 것,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운명, 죽음을 포함하여 그 모든 조건들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강조합니다. (히브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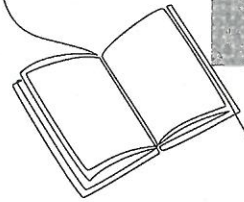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골로 1,15)이시고,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을 대리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삶과 돌아가심,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당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대리합니다.

이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해 보지요. 하느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항상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죄라고 부르는데, 신학적으로 죄의 본질은 ‘하느님을 거스름’, 다시 말해 하느님께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핵심도 이것이지요. 죄의 이 본질은 10계명을 거스르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제 하느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떠안습니다. 한 가지, 하느님은 자비롭지만 동시에 의로운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을 거스름’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거스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대리자로 하느님 앞에서 이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리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충실함을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즉 겻세마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충실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얻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 다음 주에 계속 -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스테파노의 설교와 순교

(사도 7,1-60)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무(無)'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며,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복음 선포의 장입니다. 스테파노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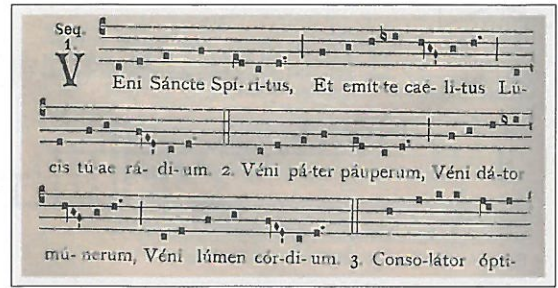
최고의회에서 심문을 받았지만,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 말씀과 함께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고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느님에게 대적하는 대적자이며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들을 박해했으며, 참된 할례와 성전 대신 사람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함으로써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파노의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죄를 드러냅니다.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구원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한 죄입니다. 이러한 스테파노의 질책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이 죄로 하느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노가 제시하고 있는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 다릅니다. 스테파노가 전하는 하느

님의 심판은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7,42) 두시는 것입니다. 즉 단죄 형식의 심판이 아닌 스스로 파멸로 이르게 하는 심판입니다. 철부지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파멸의 길로 가듯, 진리이신 하느님을 거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스테파노는 성전에 대한 설교(7,44-50)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지은 것들 안에는 사시지'(7,48) 않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신경화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그들은 '스테파노가 하느님을 모독하였다.'고 분개하면서 율법에 나온 가르침대로(레위 24,11-16)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스테파노의 모습은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영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라든지, (사도 7,59; 루카 23,46)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바치는 용서의 기도(사도 7,60; 루카 23,34)가 특히 그렇습니다. 스테파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다.'라는 업적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그분과 나는 얼마나 닮았나.'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복음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입니다.

알렐루야 '야'(ia)에서 비롯된 부속가(Sequentia)



부속가, Veni Sancte Spiritus(베니 상떼 스피리투스), [Graduale Triplex(그라두알레 트리플렉스) 253-254]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알렐루야(alleluia)는 '하느님(ia)을 찬미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나타내는 '야'(ia)를 특별히 '유빌루스'(jubilus, 환호)라고 하는데,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는 '야'(ia)라는 하나의 음절을 많은 음들로 화려하게 노래하곤 하였습니다.

멜리σμα(Melisma) 방식의 많은 음들로 구성된 '유빌루스'를 노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점차로 알렐루야의 선율이 아주 많아지면서 그만큼의 유빌루스를 암기하고 노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ia)의 많은 음들에 새로운 가사를 삽입하게 되었고, 결국 '야'의 선율과 여기에 추가된 새로운 가사만이 따로 구별되어 독립된 노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속가, 즉 '알렐루야에 부속되어 따라오는 노래'입니다.

9-10세기부터 발전하던 부속가가 16세기에는 수천 곡에 이르자,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는 미사 전례에 적합한 부속가를 네곡으로 제한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의 '파스카의 희생께 찬미를' [Victimae paschali laudes(빅티매 파스칼리 라우테스)]

성령 강림 대축일의 '오소서, 성령이여' [Veni Sancte Spiritus(베니 상떼 스피리투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시온아, 찬양하라' [Lauda Sion(라우다 시온)]

죽은 자를 위한 미사[Requiem(레퀴엠)]의 '분노의 날' [Dies irae(디에스 이레)]

1727년 교황 베네딕토 13세(1724-1730) 때,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9월 15일)의 부속가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Stabat Mater(스타뎃 마테르)]가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전례헌장 제81항)에 따라 심판과 고통을 노래하는 '분노의 날'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 전례에서 사용하는

네개의 부속가 중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의 부속가는 의미며,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부속가는 선택입니다.

원래 부속가는 그 의미대로 '알렐루야 뒤'에 따라오지만, 현재는 '알렐루야 전'에 노래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의 부속가 '오소서, 성령이여'(Veni Sancte Spiritus)는 총 10절로 구성되는데, 5개의 구별되는 선율을 먼저 흡수절이 노래하면 이어서 짝수절이 반복합니다. 성령을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선물을 주시는 분',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손님', '생기를 돌우시는 분', '지극히 복되신 빛'으로 호칭하면서,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일곱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그 두 번째 모습으로 함께 계신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교회의 전통 표현을 빌리면 '의식 성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 성찰에 대해서도 영성 신학의 많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보다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의식'하는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쩍 커버렸지만, 첫 조카아이를 키우던 누나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카아이가 네 살쯤 되었을까요? 하루는 누나가 아이를 데리고 집 앞 놀이터에 나갔더랍니다. 가서 아이와 함께 놀다가 아이를 놀려 줄 요량으로 잠깐 어딘가에 숨었다는 거죠. 사실 아이에게는 생각지 못한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장난이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다 보면 그렇게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또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래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를 두고 누나가 근처에 잠시 몸을 숨겼는데, 아이가 별 반응이 없더랍니다. 놀이에 정신이 팔려 엄마 생각을 못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잠시 후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엄마가 보이지 않자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는 다시 놀이터 바닥 모래를 가지고 계속 놀더라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다 결국 참다못한 누나가 아이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는 "엄마 안 보였는데 안 무서웠어? 엄마 안 찾

았어?" 하고 물었더니,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엄마 안 보였어도, 난 엄마 있는 거 알았어."

그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엄마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상 영속성'(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이미 형성된 이후라서 그랬을까요? 조카에게 물어봐도 그 답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일을 기억 못할 테니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어린 시절 조카의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 현존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의식 성찰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일상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흔적을 찾고 그를 통해 하느님 현존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그런 노력조차 넘어서서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계시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느님 계심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의식 성찰의 출발점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사도 17,27)

오늘(5월 28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며 '청소년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청소년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3년 5월 9일)

- 2020년 5월 11일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총무로 임명되어 2023년 5월 11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박선용 요셉 신부(서울대교구, 1990년 사제 수품)의 총무 연임을 승인함.(3년 임기)
-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총무 박종수 사도 요한 신부(서울대교구, 2002년 사제 수품)의 임기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23년 10월 9일 회의까지 연장함.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장을 주교회의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현 주교회의 사무총장 이철수 스테파노 신부(수원교구, 1990년 사제 수품)를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함.
- 교황청 성직자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마련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을 승인하고, 이 지침(개정)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함. 수정 사항을 반영한 영문 지침(Ratio Nationalis: Program for Priestly Form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revised edition))은 추후 성직자부에 제출할 예정.
-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여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2023년 7월 27일(목) 오후 3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계획을 승인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5년 6월 3일 이종국 바오로 신부(31세)
- 1983년 6월 1일 이치열 안토니오 신부(29세)
- 1993년 5월 29일 김창석 타대오 신부(67세)

교구청 알림

소방사목 봉사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분
문의: 02)727-2078,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영성연구소 축복식 및 <토마스 베리 평전> 출판 기념회

때: 6월3일(토) 16시~18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727-2278 환경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6월1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이현규 신부(칠레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2023년 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분야: 대학원 학비 장학금 지원, 학위논문 작성비 지원, 국내·외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기간: 6월30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접수(마감 당일 우편소인 유효)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주교좌 명동대성당 훈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모집 파트: 테너, 베이스 약간명
지원 자격: ①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② 다음의 성가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③ 만 26세 이하의 현재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문의: 02)774-1784 / 자세한 문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 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제18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에 부합한 활동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 / 접수: 6월5일(월)~7월14일(금)
문의: 02)460-7622(cbckcee@cbck.kr)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2023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요한 묵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때: 6월26일(월)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혜화동)
강사: 허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7일(수)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신청수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향심기도 월피정 및 소개강의 / 문의: 010-4565-8898

지도: 이승구 신부 / 회비: 1만원

1) 향심기도 월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 |
|-----|-----------------------|
| 직장인 | 6월4일(일) 13시30분~16시30분 |
| 일반인 | 6월5일(월) 13시30분~16시30분 |

2) 향심기도 소개강의

대상: 누구나 /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때: 6월7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 때 | 코스 |
|---------------------|-------------------------------------|
| 6월6일(화) 오전 9시부터 | 3코스 일치의 길 (새남터 순교성지~삼선산 성지) |
| 6월10일(토) 오전 9시부터 | 1코스 말씀의 길 (명동성당~가톨릭대 성신교정) |
| 6월20일(화) 오전 9시부터 | 1코스 말씀의 길 (명동성당~가톨릭대 성신교정) |
| 6월28일(수) 오후 7시부터 | 저녁꽃 순례길(종로성당~광희문성지-낙산성곽길-가톨릭대 성신교정) |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5월29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하루 피정 '자존감 되찾기'

주제: 여전히 나는 사랑스런 존재
때: 6월10일 13시30분~17시 / 지도: 문종원 신부
곳: 영성센터 302호(명동)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제목: 특강 'SMS와 my story'
강사: 류젬마(사진가·번역가) / 문의: 02)727-2126
때, 곳: 6월1일·8일(목)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호 / 접수: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형규 개인전: 1전시실
양현정 개인전: 2전시실
박정열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31일(수)~6월8일(목)

2023년 어머니·아버지학교 줌 온라인 교육

주제: 자녀 신앙이여주기 / 강사: 조재연 신부
때: 6월23일~7월14일 매주(금) 19시30분~21시30분(4주)
곳: 접수한 분에 한하여 줌링크 발송
주관: 한국평단협,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복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71차 미사 5월3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운향시 본당, 비현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복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6월6일(현충일)은 미사가 없습니다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사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6월10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5월29일(월) 10시~6월7일(수)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강·미사: 김성대 신부 / 문의: 010-9074-6527
 때, 곳: 6월5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6월1일~30일 / 문의: 010-8867-3217

6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6월2일(금)~4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청년 여름 침묵 피정
 때, 곳: 7월21일 20시~23일 11시, 예수마음배움터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21) / 대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10-2059-9633 성심수녀회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대회
 때: 6월10일(토) 9시~17시30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노틀담 청년 기도모임(그해,19-45)
 대상: 19세~45세 남녀 청년 선착순 15명
 때, 곳: 6월10일(토) 14시~16시30분, 노틀담수녀회
 (인천 계산동) / 문의: 010-3930-6730 노틀담 수녀회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 역삼동성당(주차 가능)
 축복 기도, 신부 강·안수 / 010-4667-3792 카타리나

| | | | |
|------|--------|------|-----|
| 6월2일 | 박용일 신부 | 6월9일 | 이상기 |
|------|--------|------|-----|

'렉시오 디비나 교실' 피정
 곳: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문의: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 | | |
|------|---------------------------|------|
| 당일 | 6월10일(토)~6월24일(토) 14시~17시 | 1만원 |
| 3박4일 | 6월26일(월) 15시~29일(목) 16시 | 24만원 |

우이동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 | |
|-------------|---------------------|
| 대침묵 피정 | 6월9일~11일, 7월27일~30일 |
| 개방의 날 | 매일 첫번째(금) |
| 개인 피정 위탁 피정 | 별도 문의 |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서울대학교 가정선교회)
 때, 곳: 6월3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이상재 신부, 이현주 회장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미사: 이기현 주교 / 강사: 김재덕 신부, 마진우 신부
 때, 곳: 6월6일(화) 9시~17시30분, 남양주체육문화센터(경기 남양주 다산지대로 91) / 회비: 5천원(티켓 구입)
 문의: 010-2127-0032, 010-9697-9004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6월10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6월23일~26일·7월7일~10일·7월28일~31일·8월4일~7일·8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쉬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6월10일~12일·6월18일~20일·6월23일~25일·7월7일~9일·7월22일~24일·7월28일~30일·8월1일~3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8월5일~8일·8월11일~14일, 추자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일~4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 | | |
|-------|-----------------|---------------------------------|
| 제116차 | 6월16일(금)~24일(토) |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
| 제117차 | 7월21일(금)~29일(토) | |
| 제118차 | 8월11일(금)~19일(토) |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 |
|------------------|----------------------------------|
| 하늘, 바람, 나(힐링 피정) | 6월9일(금)~11일(일) |
| 효소단식 | 6월22일(목)~25일(일), 7월20일(목)~23일(일) |
| 성경통독 | 7월7일(금)~15일(토)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 | |
|----------------------|---|
| 자연순례 | 6월23일~25일, 7월21일~23일 |
| 여름특별 피정(우도 자유 일정 포함) | 7월29일~31일, 8월4일~6일, 8월9일~12일 |
| 성지순례(추자도성지 포함) | 6월17일~20일,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피는기도모임
 때: 6월3일(토) 16시30분~18시30분
 곳: 가톨릭회관 205-2호

교육

수제 목주 조각 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성가, 가곡 / 초보자 환영
 강사: 강신욱 / 문의: 010-2252-2974 국악성가연구소

지역 치유를 통한 새로운 나와 의 여행
 강사: 박예진 박사 / 문의(접수): 010-2557-1361
 때, 곳: 6월16일(금)·17일(토) 10시~18시, 성바오로 수도회 본원(미아동) 바오로센터(주최) / 회비: 18만원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만 14시·금요일만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설립 10주년 이벤트
 내용: 수강료 할인 및 다양한 이벤트
 회비: 일반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새천년복음화학교 수료특강 / 문의: 02)753-8765
 주제: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 조성풍 신부(서울대학교 사목국장)
 때, 곳: 6월11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제1차 프라도 영성 배움터 수강생 모집
 대상: 프라도 창립자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알고 싶은 신자 / 문의: 02)853-1105, 010-9751-1758 한국프라도사제회
 때, 곳: 6월10일~11일11일 둘째주(토) 14시~15시30분, 명동대성당 내 영성센터 B301호(6개월)

미국 여름국제캠프·정규입학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 | |
|--------|------------------------|
| 여름국제캠프 | 초3~중2 / 남: 시카고, 여: 보스턴 |
| 정규입학 | 초5~고2 / 1년 이상 |

2023년 전진상 치유인문학 강좌시리즈11
 김지연 작가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어른의 미술'
 강사: 김지연 그림책 작가(‘넘어, 백년아 이등’) / 회비: 5만원
 때, 곳: 6월1일~22일 매주(목) 10시~12시30분(총4회), 전진상센터(합정동) / 계좌: 우리 1005-602-553012
 문의(접수): 010-7527-1956 (재)국제가톨릭형제회(A.F.I.)

| | |
|-----------|-------------------|
| 1강(6월1일) | 늘 푸르고 든든한 당신 |
| 2강(6월8일) | 조각이 모여 하나가 되니 |
| 3강(6월15일) | 나는 이런 어른 |
| 4강(6월22일) | 나를 위한 슬로건-포스터 만들기 |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2일 / 문의: 010-9836-8998

그린합창단 남성단원 모집

연습: (수) 19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오디션: 가톨릭성가 1곡 / 문의: 010-4171-3405 단장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준비중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성가봉사를 하고자하는 20~45세 남녀 가톨릭 신자 / 명동대성당 홈페이지(PC버전) 이메일 접수
때: 6월17일(토) 13시30분 / 문의: 010-3211-5195 (문자)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 합창단(67년 창단·교구 소속 평신도 단체 / 담당 최희영 신부)이 30, 40대 새단원(각 파트 약 간명)을 찾습니다 /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문의: 010-2778-2704 총무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3년 예정) 초3~초6 가톨릭 신자
오디션: 6월25일(일) 14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6월23일(금)까지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미사

핀벤티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6월3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929-2977

때: 6월2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 1층(전철 4호선 명동역)

5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5월31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은총의 깃세마니 성시간·미사초대

대상: 예수성심의 열정적 사랑체험,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분 / 고백과 상담: 18시
때, 곳: 6월1일(목) 19시~21시,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문의: 010-5782-1875 성 아놀드 안센 영성센터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썰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6월3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때, 곳: 6월2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매일 첫째(주) 10시30분(사도의 모후)·15시(디모테오), 성바오로수도회(논현동, 북카페 레벤)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명동성당1898광장 내 병의원 임차인 모집

대상: 병의원으로 직접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
이메일(c-center@catholic.or.kr) 및 전화(02-727-2306, 가톨릭회관 관리실) 접수 / 6월7일까지 접수(추후심사 예정)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제)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자녀신앙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대상: (손)자녀의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조부모
문의(상담전화): 02)744-0841 (일)·(월) 12시~15시

직원모집

동작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595-696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5월31일(수)까지 우편·방문(우 06995,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6 동작동성당) 및 이메일(mschoi6511@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진관동)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인 0명(계약직) /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조리 등 주방업무(단체 급식 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부서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채용시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 | |
|------|----------------------------------|
| 편집국 | 해외도서 출판기획 및 해외 저작권 담당자 / 영어능력 필수 |
| 영업본부 | 담당 지역 도서, 성물 영업자 / 운전 가능자 |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 수시 |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 0507-1306-1505 |
| 마리아의 종 수녀회 | 6월26일(월)~28일(수) | 분원(돈암동) 카사 마리아 | 010-2675-8221 |
|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 매일 둘째(일) 14시 | 수도원 | 02)902-1489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6월4일(일) 10시 | 서울 분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
| 성 마리아 재속회 | 수시 | 양성소 | 02)980-0385, 010-6462-0385 |
|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 수시 | 수녀회(청주) | 043)295-5940(cumjesupassio@gamil.com) |
|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 수시 | 선교회(한남동) | 010-2749-4596, 02)749-4596 |
| 한국외방선교회 | 6월4일(일) 11시 | 본부(성북동) | 010-8715-2846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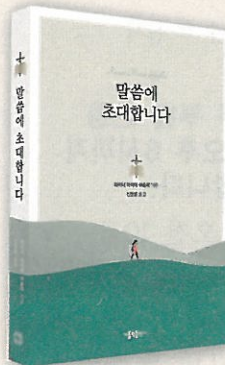
네 번째 잔의 비밀

스콧 한 지음 | 18,000원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신비를 밝히다

파스카 예식과 최후의 만찬을 탐구하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을 깊이 이해하다

신간



말씀에 초대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쉬슬러 지음 | 18,000원

주일 복음과 매일 묵상에서 얻는
오늘을 살아가게 할 힘

신앙생활, 공동체, 삶의 의미를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세계의 심장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24,000원

20세기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
발타사르의 역작

신의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고찰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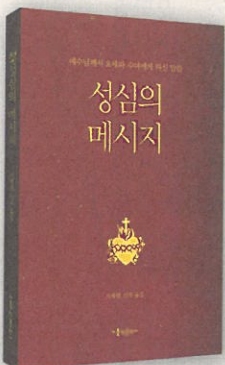
사랑의 계시

노리치의 울리아나 지음 | 24,000원

16번의 환시로 본 사랑의 계시
베네딕토 16세 교황 추천 도서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며
구원에 다가간 한 신비가의 기록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성심의 메시지

이재현 옮김 | 12,000원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 모음집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성심께 의탁하는 절실한 마음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예수 성심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8,800원

'예수 성심'이라는 주제로 엮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

예수 성심을 따를 때 찾아오는 삶의 기쁨



제2282(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 | | | |
|-------|---|---------|----------------------|
| 주일 미사 |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 유 아 세 례 |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 평일 미사 |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 혼 인 면 담 |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
| | | 성모신심미사 |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5월 27일(토) 오후 12시 혼배가 있습니다.

◎ 초등부 부활 은총 잔치

일시 : 5월 27일(토) 오후 3시 ~ 오후 6시

장소 : 성당 마당, 지하 식당

◎ 5월 27일(토)은 혼배와 초등부 부활 은총 잔치 행사 관계로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성당 마당에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6월 3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6월 4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희동 청년 누구나

일시 : 5월 25일(목) ~ 10월 5일(목) 2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youth.yh))

당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링크 공유 예정

내용 : 5월 - 목주기도 빛의 신비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오늘은 청소년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5. 21)

| 총세대 | 책정세대 (책정율) | 납부세대 (납부율) | 2022년 책정율 | 2022년 납부율 |
|-------|----------------|----------------|--------------|--------------|
| 2,082 | 745 (35.8%) | 705 (33.9%) | 43.8% | 41.8% |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휴무 안내

6월 6일(화)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6월 10일(토) 오후 2시 15분 ~ 오후 6시

장소 :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희망해 봅니다.

◎ 문화학교 6월~8월 학생모집(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영어

접수기간 : 재접수 - 5월 15일(월)~19일(금)

신규접수 - 5월 20일(토)~24일(수)

개강 : 6월 1일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 및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연희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제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청년 전례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전례단장 (010-8732-7810)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윤복순 모니카 상가이십만원

故 박영석 요셉 상가이십만원

故 손영락 요셉 상가삼십만원

◎ 감사헌금 (5월 15일~21일)

홍동수이십만원 김장자엘라벳오만원

김진택일천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승천 대축일)

교 무 금6,307,000원

주일헌금5,450,600원

홍보주일2차헌금1,663,000원

| | | | | | | | |
|----|-----|----|---------------|----|---------------|----|-----|
| 입당 | 142 | 봉헌 | 342, 210, 215 | 성체 | 165, 172, 174 | 파견 | 147 |
|----|-----|----|---------------|----|---------------|----|-----|



주님 당 신 숨 을 보 내 시 - 어 온 누 리 의 얼 굴 을 새 롭 게 하 소 서